

# 항공권 취소 수수료 414만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소비자원·공정위

3년간 추석연휴 전후 피해접수 급증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총 953건  
택배, 수요 몰려... 시간두고 이용을  
훼손 우려엔 '파손주의' 문구 표기를

# A씨는 여행을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여원을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여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 와인을 발송했지만, 이를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으로, 이는 전체의 각각 15.4%(항공권), 13.3%(상품권), 19.1%(택배)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9~10월엔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6812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 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S&P 신용등급 'AA' 유지

독자신용등급 한단계 상향 'BB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amp;P(S&P) 국제신용등급 평가에서 최종신용등급 AA로 기존등급을 유지하고 독자신용등급은 한단계 상향한 BBB+를 획득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S&P를 통해서 국제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직전평가에서 AA를 받았으며 독자신용등급은 BBB를 취득한 바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평가받은 AA는 우리나라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안정적 투자등급'을 의미한다. 특히 독자신용등급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회사의 독자 신용도를 의미한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 BBB 등급에서 국내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인 BBB+로 한 단계 상향됐다.

공사는 최근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공사 영업실적 개선 가능성과 부채감축 계획 등이 이번 독자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국제신용등급 상향은 공항 운영 정상화와 재무건정성 및 미래 경쟁력 강화 등 인천공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과를 높이 평가 받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결점 공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 한국전력 차기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

한국전력공사가 김동철 전 의원(사진)을 차기 사장 선임한다.

18일 오전 11시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전 의원을 사장 후보로 단추추천했으며, 김 사장은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 되는 셈이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1995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로 광주 광산구에서 4선(17대~20



대)을 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등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등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다. 민주당 권노갑 전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광주 광산구에서만 4선(17~20대)을 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허정윤 기자

##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한 가치 '일·삶 균형'

고용정보원, 직업가치관 검사  
50대 이상은 '직업안정' 1순위

40대 이하 성인과 대학생 등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5점 만점에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안정(4.09)'과 '경제적 보상(4.07)' 순이다.

다만 조사 대상별로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1순위가 일과 삶의 균형(4.36, 4.31), 2순위가 경제적 보상(4.24, 4.11), 3순위가 직업안정(4.16, 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대학생 제외)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1순위에 일과 삶의 균형, 2순위에 경제적 보상을 꼽았다. 30~40대도 일과 삶의 균형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는 직업안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이 1순위였다.

/김연세 기자 kys@

## 유망 스타트업 4곳,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무협·산은, 미국에 사절단 파견  
샌프란시스코 '드림포스' 참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방문해 투자사와 파트너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리콘밸리 진출을 타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은 지난 11일~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절단은 지난 6월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에서 수상한 '모픽'(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키토코에이아이'(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솔루션), '조인앤조인'(비건 푸드테크 기업), 'Kabuk'(여행 구독 플랫폼) 등 4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 2023'에 참가해 AI·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고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한국무역협회가 KDB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1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파견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이 KDB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무협

또 KDB 산업은행의 미국 벤처캐피털인 KDB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투자사들은 실리콘밸리 현지 실정에 맞는 IR기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추후 해당 산업별 전문 투자사와의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VC Riverwood Capital 존 양 부대표, Story Capital 저스틴 남 대표, Ceeya 박기상 대표, Exaltitude

의 진 리 대표 등 현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과의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모픽 신창봉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혁신 기술의 잣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사절단 참가 경험을 살려 실리콘밸리에서 당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17개국 참여 '세계어촌대회' 오늘 개막

해수부,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9~2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17개국의 장·차관급

대표단 및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가한다.

개막행사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누엘 바란지 어업양식국장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